

# ‘억만장자’ 한국계 어머니 둔 제시카 페굴라 “어머니 모국에서 경기한 것 특별”

입양아에서 억만장자 된 한국계 어머니를 두어 화제가 됐던 제시카 페굴라(25·미국세계78위)가 16일, 여자프로 테니스(WTA) 투어 KEB 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 달러) 1회전서 이살린 보나벤투르(125위·벨기에)에게 1대2(7-5 2-6 4-6)로 패하며 탈락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기를 마무리하며 “기회 되면 다시 나올래요.” 라고 말했다.

제시카 페굴라는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 북미 아이스하키리그(NHL) 버펄로 세이버스의 공동구단주 테리 페굴라와 킴 페굴라 부부의 딸이다. 페굴라는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는 기업가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집계한 전 세계 부자 순위에서 올해 기준 424위에 오른 ‘억만장자’ 이다.

제시카의 어머니 킴 페굴라는 1969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대학생 시절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중 테리 페굴라를 만났고 이후 결혼해 제시카 페굴라를 낳았다. 뉴욕의 지역 신문 데모크라트 앤 크로니클가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성 가운데 한 명” 으로 평가한 킴 페굴라는 마케팅, 미디어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고아에서 일약 미국 프로스

포츠 구단주까지 올라갔다.

킴 페굴라는 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일정을 꾸렸지만 제시카가 1회전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딸의 경기를 관람할 수 없었다. 이날 새벽 끝난 NFL 버펄로의 경기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탓이다.

경기 후 제시카는 “힘든 경기였다.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 며 “서울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관전해 놀라웠다. 팬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머니 모국에서 경기한 것이 특별하다고 느껴졌다. 2회전에 올라 제 경기를 부모님께 보여드렸다면 좋았겠지만 여기에 만족하려고 한다. 오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 어머니는 옛날 고아원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지난 8월 WTA 투어 시티오픈에서 첫 우승을 하기도 한 그는 “내년에 50위 안에 들고, 메이저 대회에도 모두 출전하는 것이 목표다.” 라며 “한국 미용이 유명해 손톱, 피부 관리도 받고 싶고 화장품 쇼핑도 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 한국 축구, 월드컵 예선 평양 원정 ‘불투명’

한국 축구대표팀이 29년 만의 평양 원정을 앞두고 북한의 침묵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는 이날 “북한 측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과 관련해 한 달째 어떤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다.” 며 “지난 11일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 전했다.

협회는 북한이 지난달 2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10월15일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북한-한국전을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르겠다고 통보해 북한축구협회는 한국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홈경기를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지난달 초 AFC에 전달했으며, 이에 한국은 평양 원정을 준비해왔다. 남북한이 평양에서 맞붙는 것은 1990년 이후 29년 만이어서 여러모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성사 가능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협회는 평양 원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본적인 행정 처리도 진행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일찌감치 선수단 방북 경로와 비자 문제 등을 놓고 내부 협의에 나섰지만 북한이 묵묵부답이라 진전이 없다.

보통 원정을 떠날 때 늦어도 2주 전에는 현지 답사를 다녀오지만, 이번에는 준비 절차를 잡지도 못하고 있다. 일단 평양 원정이 진행될 것을 감안해 2년 전 여자축구가 경험했던 평양의 환경을 더듬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 원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제3지역 개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남북한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과 최종예선에서 만났지만 북한의 홈경기 거부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이 새로운 경기 개최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르면 경기 장소는 경기 3개월 전 최종 확정되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바꿀 수 있다.” 며 “10월 초까지는 기다리겠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것” 이라고 전했다.

# 30대 여성, 수영으로 도버해협 4번 횡단 사상 최초



30대 여성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을 수영으로 네 번이나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 콜로라도 출신의 사라 토머스(37·사진)는 일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0시 7분 영국을 출발했다. 토머스는 5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헤엄쳐 도버해협을 4번 횡단한 뒤 화요일인 이날 오전 6시 30분에 도버 근처 해변에 도착했다. 그동안 4명이 영불해협을 3번 횡단한 적은 있었지만, 4번 횡단에 성공한 사람은 토머스가 처음이다.

당초 토머스는 80 마일(약 130km)을 수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강한 해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130 마일(약 210km)을 헤엄쳐야 했다. 토머스는 수영하는 동안 탄수화물과 전해질, 카페인, 사과 주스 등을 혼합한 음료만을 마셨다. 그녀를 지원하는 배가 뒤따르면서 음료가 든 병을 건네줬다. 도착 직후 토머스는 삼페인과 초콜릿을 먹었다.

2017년 11월 유방암 진단을 받아 화학요법과 수술,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그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영을 해왔다. 횡단에 성공한 그녀는 동료 유방암 생존자들에게 영감을 돌렸다.

토머스는 도착 직후 “진짜로 (몸에) 감각이 없다.” 면서 “해변에 있던 많은 사람이 성공을 축하해줬다. 내가 해낸 것을 믿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도버해협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인 영불해협에서 폭이 가장 좁은 곳으로 영국 도버에서 프랑스 칼레를 잇는 바닷길이다. 최단 거리는 33.3km이다.

한편 도버해협에는 해저터널이 뚫려있으며 초고속열차인 유로스타가 다닌다. 유로스타를 타면 런던에서 파리까지 2시간 반이 채 걸리지 않는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